

Children's Literature

2009년 **봄** 호

..... 통권 제126호

아동문학

- 피빛일요일
-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 검은 나비
- 허수아비와 분홍색모자
- 반년만에 없어진 나라
- 우리 동네 공연장
- 한그루 호두나무
- 잘못을 뉘우친 고슴도치
- 열린 하늘엔 별이 빛난다
- 별 하나 그리움 하나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

중국조선족순수아동문학전문지

2009년 봄호
(통권 126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儿童文学. 2009 春季版: 朝鲜文/ 金贤舜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3

ISBN 978-7-5449-0536-7

I. 儿... II. 金... III.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34538号

儿童文学(春季版)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 字数: 2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36-7 (民文)

版次: 2009年3月 第1版 2009年3月 第1次印刷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까마귀야 까마귀...

□ 류정남

엄마는 철이를 까마귀 아님 “새끼까치” 처럼 귀여워했습니다.

꽃살처럼 벌려진 빨간 아기입술에 머루알 같은 탱탱한 젖꼭지를 물리면서 엄마는 고운 목소리로 이런 동요를 읊었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
너 어디로 가니?
새끼치러 간다.

몇마리 했니?

열마리 쳄다.

나 하나 주렴?

안된다 안된다, 절대 안된다!

고운것도 내 새끼 미운것도 내 새끼

종종 쪼로롱!

철이가 세살때에 이쁜 엄마는 때돈 벌려고 외국으로 “가짜시집”을 갔다는데 그만 다시는 돌아올줄을 모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또 ‘까마귀새끼’ 들을 낳은것 같구나...”

할머니는 꼬박 8년을 이런 녀두리만 하다가 까마귀떼 요란하게 울던 어느 저녁무렵에 가마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가마목은 술주정뱅이 아빠가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밥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그냥 욕질해대군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과 채는 조금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새 철이는 5학년생이 되었고 듣기 싫은 “까마귀”라는 별명이 달렸습니다.

“저 까마귀손을 좀 봐!”

애들이 놀려주었습니다.

“까마귀처럼 숙제까지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선생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까마귀괴길 먹었냐? 그렇게 말했는데두 또 사달질이야!”

아빠가 뼈가 앙상한 주먹으로 철이의 볼을 탁 박아주었습니다.

철이는 정말 “까마귀”가 된 모양입니다. 꽃밭의 고운 꽃

들을 보아도 공연히 짓밟아주고싶었고 엄마아빠손을 잡고 즐겁게 산보하는 애들을 보아도 고무총으로 이마뺨을 쏘아주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실없이 걸고들어 싸움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애들은 그와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막처럼 철이의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까옥— 까옥—”

장씨아저씨네 집주위 나무에는 늘 까마귀떼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오곤 합니다.

한족인 장아저씨는 전에 아버지와 형님동생하면서 지낸 사이였습니다. 장아저씨가 어렸을 때 부모따라 산둥에서부터 살 길을 찾아 이곳에 들어올 때 철이할아버지네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지금까지도 철이네를 구명은인처럼 생각하고있는 부지런한 나그네였습니다.

돼지도살장업으로 돈을 잘 벌어들이는 무섭게 생긴 텃석부리 장씨아저씨는 생긴것과는 달리 마음이 선량하여 돼지를 잡은후에는 더러운 내장이랑 고기부스레기랑 까마귀먹이로 던져주곤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도살장주위에는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다녔고 늘 더러운 냄새가 풍겼습니다.

“까옥— 까옥— 까옥—”

철이는 까마귀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까마귀가 징그럽게 울어댈 때면 꼭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할머니가 세상뜨는 날도 까마귀들이 온종일 울었됐고 열하 나밖에 안되는 동네 애들이 학교가 없어져서 건너마을 한족학교로 다니게 된 날도 많은 까마귀들이 울어댔습니다. 아마 철이의 엄마가 외국으로 “시집”가는 날도 이렇게 까마귀들이 슬피 울었을것입니다.

오늘도 웬 일인지 아침부터 까마귀들이 자꾸 울어댔습니다. 재수없는 날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마주 보기만 해도 무섭기만 한 아빠가 오늘은 현성으로 올라간다고 엿저녁 그랬습니다.

또 술을 가득 퍼마시고 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웨! 웨! 웨익!”

철이는 징그럽게 우는 까마귀들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액을 면할수 있다고 전에 할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더는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엿저녁에 아빠는 술에 잔뜩 취했지만 처음으로 철이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제는 고무총으로 까마귀를 쏘지 말라고 타이르는것이었습니다. 아빠의 말이 까마귀들은 세상에서 제일 효도할줄 아는 동물이라는겁니다. 사나운 독수리나 매가 덮쳐들 때면 어미들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법이고 그 새끼들도 다 큰후이면 운신을 못하는 어미까마귀들한테 먹이를 물어다주면서 숨지는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켜준다는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술취한 아빠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까마귀보담도 못한 놈들이지...”

아빠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철이는 울고있는 아빠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고 이상스럽기만 했습니다. 까마귀의 이야기에 놀랐고 조용히 아들에게에 누워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아빠의 뻘뻘마른 모습이 이상스러운 영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날 까마귀들이 특별하게 울어댔지만 현성에 간 아빠가 돌아오지 않은외에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철이는 습

관대로 묶은밥을 몇술 떠먹고는 혼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렝렝한 구들우에 새우처럼 꼬부리고 잠이 든 철이한테 너무나
도 놀라운 “꿈”이 덮쳐들었습니다. 아빠가 현성으로 갔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철이는 그만 된 방
망이에 머리를 맞은 놈처럼 눈앞이 캄캄해지고말았습니다. 온
종일을 꿈속에서만 헤매이는것 같았습니다.

한족 장씨아저씨가 철이를 자기네 집에 데려갔습니다. 쏘
홍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한 철이를 포옹해주었고 나이보
다 키가 큰 쏘홍도 철이결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출국수속을 하러 현성에 갔다가 차에 치였다
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전에 마지막 부탁을 남기려고 장아
저씨를 불렀댔다는것입니다.

철이는 그날 장씨아저씨네 집에서 올라가 잠이 들었습니
다. 꿈속에서 오래동안 얼굴도 기억되지 않던 엄마를 보게 되
었습니다.

엄마는 검붉은 포도알 같은 젖꼭지를 철이의 빨간 입술에
밀어넣으면서 “까마귀동요”를 불렀습니다.

고운것도 내 새끼

미운것도 내 새끼...

하늘에서 새끼까마귀들이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맞추어 자
유로이 춤추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엄마의 눈물어린 얼굴이 장씨 안해인 쏘홍
엄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동안 못 느껴보았던 따
뜻한 엄마품 같아서 철이는 그냥 꿈짜얹고 안온한 꿈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가버릴 준비를 싹 해놓고... 이 보상금과 이

제 나오는 보험금은 꼭 철이이름으로 저축통장을 만들어주지요.”

“사람이란 빌어먹게 되더라도 신세진걸 잊어서는 안되지요… 우리 이 애를 친아들처럼 키웁시다.”

장씨 아저씨와 쏘홍 엄마가 가담가담 한숨을 섞어가며 나누는 얘기였습니다.

…철이는 갑자기 설음이 북받쳤습니다.

“엄마!” 하고 오래동안 잊어버렸던 부름을 불러보고싶었지만 입술을 옥물고 독하게 참았습니다.

깊은 꿈을 꾸고있는것 같은 잠속에서 그냥 깨어나고싶지가 않았습니다.

—철이는 새옷차림을 하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장아저씨하고 쏘홍 엄마하고 량태머리를 갈라 맨 키가 쫘쫘한 쏘홍까지 비행장에 나와 손저어 바래주고있습니다.

“외국갔다 맘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렴아.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자꾸나.”

장씨아저씨가 일에 꺼끌꺼끌해진 손으로 철이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서투른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그래그래, 나도 평생 아들이 없게 돼서 많이 부러워했는데…” 하면서 쏘홍엄마가 철이의 작은 몸을 가볍게 껴안아주었습니다.

철이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안했습니다. 왜서인지 얼핏 쏘홍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쏘홍은 아무말없이 이따금 하얀 손만 저어보였습니다.

분명 웃고있는 얼굴이었는데 눈에는 반짝이는 물방울이 맺혀있는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자주 싸움질도 하고 애도 많이 먹여주던 여자애였습니다. 또 철이가 자기의 별명을 벗어보려고 “진짜까마귀는

네다!” 라고 욱해주던 쏘홍이었습니다.

그런 쏘홍이 오늘따라 특별히 하얗게 살색이 비쳐왔습니다.

“까마귀녀자애…”

비행기가 리륙을 할 때에 철이는 문득 무한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인제는 장아저씨와 쏘홍까지도 영영 멀리멀리 멀어져가는감을 느꼈습니다.

철이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맘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장아저씨, 내 꼭 돌아올게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그리고 내 친구들까지 모두 이곳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고무총으로 많이 겁먹여주던 까마귀들도…)

…까마귀야 까마귀
너 어디로 가니?

저 푸른 창공에서 “까마귀동요”가 은은히 들려옵니다.

그것은 분명 꿈속에서만 눈익혀왔던 엄마의 고운 입술이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허수아비와 분홍색모자

□ 문일한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바다가 모래밭에 분홍색밀짚모자 하나가 떨어져있었습니다.

“야아, 저기 예쁜 모자가 있다!”

고기잡이 나간 아빠를 마중나온 여자아이가 부리나케 달려가서 분홍색모자를 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금새 모자를 도로 던져버렸습니다.

“킷, 찢어진 모자잖아!”

아이는 머리 옷부분이 찢어진 모자를 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다시 모래밭으로 굴러떨어진 분홍색모자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지난 여름 모자가게에 걸려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갖고 싶어했는데…)

분홍색모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자가게에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 정말 예쁜 모자구나! 사고싶다!”

사람들은 모자가게앞에 서서는 분홍색모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주 예쁘게 생긴 언니가 분홍색모자를 샀습니다.

“흠, 이 모자를 쓰고 바다가에 가야지!”

언니는 다음날, 분홍색모자를 쓰고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가로 놀러 갔습니다. 분홍색모자덕분에 언니의 모습은 어디서나 눈에 잘 띄었습니다. 마치 머리에 분홍꽃이 핀 것처럼 예뻐 으니까요.

그러나 바다가에 간지 이틀째되는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려는지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만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언니의 머리에 씌워졌던 분홍색모자가 휙 벗겨졌습니다.

“앗, 내 모자!”

바람개비처럼 굴러가는 모자를 따라 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잡을가하면 심술쟁이바람은 또다시 모자를 굴렁쇠처럼 떼굴떼굴 굴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는 그것도 모자라서 모자를 마치 연처럼 하늘높이 날아가게 하더니만 바다가 철조망에 탁 걸어놓고 저만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앗, 제발 저를 여기서 내려주세요!”

분홍색모자는 쿵다쿵다 뛰는 가슴으로 멀리 시퍼런 바다물과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심술쟁이바람은 들은척도 않고 저만치 달아나고말았습니다.

그때 허겁지겁 뒤쫓아온 언니는 분홍색모자가 또다시 날아갈세라 다급하게 확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찌면 좋아

요! 분홍색모자는 그만 철조망의 가시에 걸려 쭈욱 찢어지고 말았답니다.

“어머, 난 몰라, 난 몰라! 예쁜 모자가 다 찢어졌잖아!”

언니는 찢어진 모자를 들고 한참동안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가는 그만 할수 없다는듯 분홍색모자를 모래밭에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분홍색모자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뒹굴어다니고 천둥번개때문에 몸을 부르르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사나운 태풍도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자 바다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웁지, 저기서 좀 쉬었다 가야지!”

지나가던 아기바람이 새처럼 포르릉 분홍색모자우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분홍색모자는 가만가만 아기바람을 붙렸습니다.

“아기바람님, 아기바람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주실래요? 전 다시 누군가의 모자가 되고싶어요!”

아기바람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가는 자기가 앉아있는게 모자라는걸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당신은 모자였군요. 그런데 어찌다가 이렇게...?”

분홍색모자는 태풍이 불던 날 저녁의 이야기를 가만가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있던 아기바람은 한동안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는 큰소리로 웨쳤습니다.

“아, 당신을 데려다줄 곳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예쁜 모자를 쓰고싶다는 허수아비를 만난적이 있거든요. 허수아비도 팬찮다면 말이지요.”

“그럼요. 팬찮고말고요!”



분홍색모자는 다시 모자가 될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상관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모래밭에서 떠나고싶을뿐이었으니깐요.

“그럼 나를 꼭 붙잡으세요. 당신을 그리로 데려다줄테니.”

분홍색모자는 아기바람의 꿈무늬를 꼬옥 잡고 천천히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푸른 바다랑 작은 산을 넘고넘어 아기바람은 노란 물감을 칠해놓은듯한 넓은 별판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다가는 저만치 두팔을 벌리고 서있는 허수아비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허수아비님, 모자를 갖고싶다고 그랬지요? 여기 예쁜 모자를 데려왔어요! 자, 한번 써보실래요?”

아기바람은 허수아비의 머리우에 분홍색모자를 살짝 씌워 주었습니다.

“아, 분홍색모자야, 만나서 반갑구나! 이제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안심되는걸! 게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수 있으니 심심하지도 않겠는걸!”

허수아비는 두팔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홍색모자도 배시시 웃으며 그동안의 일이며 무서운 태풍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기바람은 기쁜 마음으로 새처럼 후르륵 저만치 날아가기 시작하였답니다.

· 단평 ·

혼자서도 리해를 도와주는 도움말

김천사

“허수아비와 분홍색모자”는 어느날 갑자기 심술쟁이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홍색모자의 이야기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바다가에 버려져있던 분홍색모자는 그래도 누군가의 모자가 되고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있다가 마침내 허수아비의 모자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홍색모자처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깨끗하게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될테니까요.

피빛일요일

□ 후 안

눈을 뜨니 벌써 열시가 거의 됐다.

침대머리에는 엄마가 두고 간 용돈 5원이 놓여있었다. 현이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실로 들어갔다. 지난주에 아빠가 사준 분홍바탕에 곰돌이가 새겨져있는 치솔고뿌가 이뻐다. 치솔질하는 동안 아빠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지난주에 만난 아빠 눈에는 피발이 서있었다. 며칠이나 깎지 않았는지 더부룩한 턱수염은 희끗희끗해있었다. 치킨과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과 콜라 한컵을 다 먹는 동안 아빠는 그냥 과일주스 하나를 시켜놓고 나만 지켜보고있었다. 아빠모습에 가슴 아팠다. 항상 밝아보이던 아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얼굴이었다. 치솔질을 하는 현이의 눈가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